

# 제2차 G-20 정상회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이 동 휘 교수 (Prof. LEE Dong-hwi)

제2차 G-20 정상회의(2009. 4. 2, 런던)는 제1차 정상회의(2008. 11. 15, 워싱턴)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회의 개최 전에 노정되었던 회원국간 이견과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합의’(historical decision)라는 긍정적 측면이 크나, 향후 회원국들이 여하히 효율적인 후속 조치들을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보된 성공’(deferred success)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조율을 하는 가교적 역할과 함께 다양한 의제간 균형을 주도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경제외교 능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G-20 정상들은 29개 항의 ‘정상 선언문’(Leaders’ Statement)과 3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경제 회복 및 고용,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강화, ▲국제 금융 기구의 기능 강화, ▲보호주의 저지 및 국제 무역·투자 증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으로 요약된다.

제2차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회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번 회의는 국제 사회의 경제위기 대처에 긴요한 ‘심리적 안정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 관점은 회원국들이 제반 의제들에 대해 가지는 다양한 이견(異見)을 극복하고 단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미국과 금융 감독·규제를 강화해 경제위기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대조적인 시각들이 이번 회의에서 절충적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타협적 태도, 유럽 국가들간 상호 협력, 중국의 전략적 접근 등이 작용하였다.

동 정상회의의 성과 중 세 번째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은 재무장관회의의

토대 위에서 시작된 G-20 정상회의가 향후 그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금년 중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속성의 유지에 성공하였다.

또한 G-7/G-8이 현실적으로 정상간 ‘대화’에 우선점이 주어졌던데 반해, G-20는 실질적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G-20의 향후 역할 강화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제의 모색 과정에서 G-20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 위기의 중심에 있는, 2조2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부실자산(toxic assets)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5조 달러에 이르는 국제적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적정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가 U자형과 L자형 침체 지속 상태의 혼재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각국은 자구적 차원에서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제 민족주의(신민족주의) 경향을 더욱 고조시킬 경우, 국가간 갈등이 경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외교 분야에도 확산될 위험성이 내재한다.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우회하였으나 향후의 G-20 회의 과정에서 더욱 강도 높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기축통화 논의는 냉전 시대 정치·안보적 필요에 따라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발권력에 기초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용인하던 시기가 종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다극화에 이어 정치적 다극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제도화의 기초를 구축하였지만, 일시 및 장소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G-20 정상회의가 G-7/G-8을 대체할 정도의 질서관리 기제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ad hoc base에서 탈퇴하여 확고한 운영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가 순조로이 G-7/G-8의 대체재로 확정될지의 여부에는 여전히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